

“300만 유커 전남으로”...전남도·관광재단, 관광세일즈 박차

중국 정부 조치 앞서 6월부터 현지 전남관광 홍보 추진 9월 중국 신중년 타킷 웰니스·의료 등 맞춤형 상품 개발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관광 허용에 따라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유커(중국인 단체 여행객)' 유치를 위한 현지 관광세일즈에 박차를 가한다.
단체관광 허용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78개국으로 단체 비자 발급이 중단된 지 6년 5개월 만이다.

11일 전남관광재단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남을 찾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3만1310명)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은 2만4600여명으로 가장 많은 79%를 차지했다.
해당 관광객수는 개별 관광객을 제외한 여행사를 통해 전남을 찾은 단체관광객 중 전남도가 교통·숙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관광객만

집계한 수치로 당시 전남을 찾은 관광객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 수는 경북 상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감했다.
전남관광재단 관계자는 “올해 초 중국 일부 노선이 재개되며 FIT(개별 관광객) 중심의 관광 수요가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중국 관광시장의 회복은 아직 요원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한국행 단체관광 허용은 국내 관광업계에 훈풍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관광재단은 중국 정부의 조치에 앞서 유커 유치를 위해 한발 빠른 준비를 시작했다.
중국 현지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난 6월부터 중국 서부여유산업박람회에 참가해 도내 역사·문화 체험에 대한 홍보를 추진했다.
오는 9월에는 텐진(天津)과 시안(西安)을 방문해 '신(新)1선 도시 순회 관광·항공 설명회'를 통해 웰니스·의료 등 고부가 관광상품과 중국 신중년(新中年)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전남 단체관광객 수요를 조

기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재단은 중국 현지 상품 구성부터 전남 단체 관광으로 이어지기까지는 2~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올 4분기 중순인 11월 이후부터 실제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영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은 관광업계에 단체 비자 허용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유커들이 만족할 만한 다양한 전남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전남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광주시, 축제·피서지 물가 안정 캠페인



광주시가 '광주 비어페스트'가 열리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축제·피서지 물가 안정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바가지 상품 등을 예방하고 착한가격 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 소비자단체 등이 민관 합동으로 진행했다.
광주시와 소비자단체는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 가격표시제 준수를 요청했다. 또 비어페스트 참가자에게는 광주시 착한가격 업소 이용을 독려하는 등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시는 오는 31일까지는 축제·피서지 물가안정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축제장과 피서지 등을 중심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서선욱기자



전남도가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지역자원 연계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가자들. (사진=전남도 제공)

'인구 감소 대응' 지역자원 연계 청년창업, 전남 인구 늘렸다

2차 사업화 대상 56팀 중 47팀 전남 인구 감소지역 전입

전남도가 지난해부터 인구 감소에 대응해 추진한 '지역자원 연계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선순환 효과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2차 사업화 대상 56팀 가운데 타 지역 청년 30팀을 포함한 47팀이 전남으로 전입을 완료해 청년 인구 유입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역자원 연계 청년창업'은 민선 8기 김영록 전남지사의 역점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타 시·도와 도내 청년이 잠재력 있는 지역자원과 특산물을 활용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 인구 감소 지역인 16개 군 지역에서 창업하도록 최대 7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해 286팀 신청자 중 1차로 100팀을 선정해 지원조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 중 2차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타 시·도 30팀, 도내 청년 26팀 등 총 56팀을 선정해 재료비·인테리어비·사무실 인차비 등 사업화 자

금을 최대 2000만원씩 지원했다.
올 연말에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25팀을 선정해 최대 5000만원의 '3차 사업고도화 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자원을 활용해 창업에 성공한 주요 우수 아이템은 곡성군의 특산물인 토란을 활용해 초콜릿을 제작·판매하는 김재천씨의 '초코라니', 구례의 고급차(茶) 체험장 운영과 티백형 차를 생산 예정인 이가영씨의 '고차슈차숨'이 대표적이다.
또 신안군의 폐그물을 이용한 수세미 제조와 업사이클 제품을 판매하는 최영모씨의 '퍼플웨이', 강진군 정약용 제다밭을 활용한 상품 개발과 체험 관광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인 이진나씨의 '하모니' 등도 주목받는 아이템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멘토링, 역량 강화, 선진지 견학·성과 공유회 프로그램 지속 지원 등 '지역자원 연계 청년창업 지원사업 브랜드(BI)'를 개발해 전남형 청년창업 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여수·순천~서울 수서 SRT 운행...고속철 불균형 해소 기대

전남 동부권 지역 주민 숙원인 고속철 불균형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9월1일부터 전라선에 '여수·순천~서울 수서행 SRT'가 운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SRT 운영사인 ㈜SR은 관계기관과 협의의 통해 전라선 수서행 고속열차 확대 운행에 대한 노선 면허를 지난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발급받음으로써 해당 노선 운영을 확정했다.
예·발매는 11일부터 가능하도록 예약시스템을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 누리집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라선 SRT는 여수엑스포역에서 첫 출발해 수서역에 도착한다. 각 하루 2회 왕복 운행으로 총 4회 운행된다.
그간 전남 동부권 고속철은 여수엑스포역에서 용산역이나 서울역까지 매일 KTX만 30회

운행했지만 여수~수서 간 SRT가 4회 운행되면 총 34회로 늘어난다.
경부선·호남선 동시 운행되는 평택~오송 병목구간이 2027년 2개로 복선화되고 KTX·SRT 차량이 추가 도입되면 열차 운행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라선을 이용하는 전남 동부권 주민은 수서역을 오가는 고속열차가 없어 익산역에서 환승하거나 서울까지 간 다음 서울 강남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수서행 고속열차가 운행되면 환승 필요가 없어지고 이동 시간이 단축돼 교통 불편과 지역 간 고속철도 서비스 불균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전남도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통령실을 비롯한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전라선 고속열차 증편과 수서행 고속열차



전라선 '여수·순천~서울 수서행 SRT' 운행 노선도. (그래픽=전남도 제공)

운행을 요구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조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1.발전설비용량 : 700kW
2.사업개시예정일 : 2023. 08 ~ 2048. 07(예정)
3.사업운영기간 : 2023. 08 ~ 2023. 08. 16까지 전일 목포시 미항로 191-4 (2층) 일양산업으로 인적사항과 의견을 기재하셔서 우편으로 송부하시거나, E-mail : ilyang00@daum.net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발전소명	6. 신청인	7. 용량(kW)	8. 발전소 위치 및 면적
1. 교산1호 태양광발전소	김광택	99.56	전남 나주시 세지면 교산리 200-1, 200-2, 201
2. 교산2호 태양광발전소	최남수	99.56	
3. 교산3호 태양광발전소	최남수	99.56	
4. 교산4호 태양광발전소	최남수	99.56	
5. 교산5호 태양광발전소	김광택	99.56	
6. 교산6호 태양광발전소	박금자	99.56	
7. 교산7호 태양광발전소	김지영	99.56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분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저소득층
급여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보험료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공적연금 159
국민건강보험
공적연금 159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한국전문회계사
Korea Top Accountants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하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쁨과 근로 모두 행복해진다.

국민 이해심에서 자란 신뢰입니다.